

지면안내	<p>02 방중 연구동 화재 -담뱃불로 인한 실외 화재 특히 문제</p>	<p>03 학생들이 학생회에 바라는 점 -2011년 총선을 맞아 학생들이 학생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p>	<p>04 우리는 학교외의 직거래를 원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p>	<p>05 창작과 비평 학술자료 이용도 떨어져 -학술자료 구독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이용률 문제, 알차게 이용할 3가지 방법 제시</p>	<p>07 학생회 선거 공약 -아간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p>	<p>08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 음악이 존재한다? -스타벅스부터 지하철역사까지 음악이 활용되는 모든 곳</p>
------	-------------------------------------------------	----------------------------------------------------------------------------	----------------------------------------------------------------	---------------------------------------------------------------------------------------	-----------------------------------------------------------------------	-----------------------------------------------------------------------

삼학송

낙산에 과연 꽃이 피었을까요?

오랜만에 학교에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데 우리학교에서도 그 꽃이 피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꽃봉오리는 맺힌 듯하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단위가 세 개이고 그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이후로 출마자가 나오지 않았던 아간총학생회다. 지난 학기는 두 개의 공개기구만 당선이었기 때문에 선거라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문사 기자로서 다소 심심한 '판'이었다. 게다가 총학생회 외에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 아쉬울 수밖에. 이에 무려 22명의 주인공이 등장한 이번 선거는 꽤 흥미롭다.

개인적으로 선거 팸플릿을 읽어보는 걸 좋아한다. 후보의 얼굴과 프로필을 적어놓은 페이지에서 묘한 관음증적인 느낌을 즐기는 걸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에 대한 당연한 호기심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어느 학교에서 누가 출마했고 그는 어떠한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지 읽는다. 그 다음은 공약 따져보기다.

공약은 언제 읽어도 흥미롭다. 대부분 구어체로 읽기 좋게 쓰인 내용은 하나같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모든 공약이 그대로 이뤄질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모든 공약이 재미가 없어진다. 후보자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세우는 공적인 약속이니 일단 믿어보고 따져보며 관심을 가져보는 편이 훨씬 즐겁지 않을까.

정책토론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다소 길어졌으나 그림수록 재미있는 화제거리도 많다. 후보들이 직접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고 누군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다시 질문이 이어지는 재미있는 릴레이 토론과 같은 느낌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몇 주간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었던 재미있는 놀이거리였다. 학생들이 얼마나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 놀이를 즐겼는지 투표율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낙산에 정말 꽃이 피었을까.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이상이 편집국장



▲ 지난 22일 창의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학생들이 '드림하이'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공약을 경청하고 있다.

28일~29일 총학 · 야총 선거

2011년 총학생회 후보, '드림하이' 아간총학생회 후보 '톡톡(talk talk)' Vs 'He's different'



▲(왼쪽부터)총학생회 기호1번 '드림하이' 김미정(후), 김태성(정) 후보, 아간총학생회 기호1번 '톡톡' 이해선(정), 황인혁(부) 후보, 기호2번 'He's different' 김중섭(정), 김종원(부) 후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2011학년도 총선이 진행된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말 후보등록자가 없어 넘어온 보궐선거로 선거 단위는 총학생회, 아간총학생회(아간학부), 학생복지위원회(대의원), 졸업준비위원회(대의원)이며 단과대별로 사회과학대, 예술대, 공과대학 선거도 진행된다.

총학생회는 단선이며 아간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경선으로 선거를 치른다. 인문대 학생회는 다른 단과대 학생회보다 조금 빨리 선거가 이뤄져 '4Season' 박아름(영어영문 3)정학생회장, 박지수(지정 2)부학생회장이 지난 24일 당선됐다.

2011년 총학생회 후보 '드림하이'
김태성(정통 4)정학생회장 후보와 김미정(한국어문 4)부학생회장 후보가 '드림하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로 27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출마했다.

'드림하이'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은 ▲등록금 동결 ▲학생 이월 제도 ▲강의평가 모니터 요원 도입 ▲다양한 강연 콘텐츠 제공 ▲한성 소셜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SNS 설치 ▲스마트 학생증 도입 ▲취업 및 공모전 정보 공유 · 배포 ▲데일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 등의 취업 관련 공약이 있다.

김미정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각 단과 교수

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공모전 등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연계해 취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창업을 위한 예비CEO 교육 인턴십, 데일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그밖에 강연 문화 콘텐츠 기업 '마이크 임팩트'를 통한 '명강연 Built-in계획'이나 '보케베케(VOCA-VACA)', 한성인의 파티, 한성대 영상의 확대, 데일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동결, 학기 초과자 등록금 개선, 분할납부자 선정 방식 개선, 교육훈련지원금 활용범위 확장 등으로 세분화된다. 올해 2.6% 인상된 등록금에 대해 김태성 정총학생회장 후보는 "지난 방중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 조건 중 적립금 내역 공개가 들어 있다. 이를 이용해 등록금 동결 이유를 하나씩 짚어갈 것"이라 밝혔다. 또 "방중에 진행되는 등록금 심의를 학기 중으로 옮겨 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간총학생회(이하 야총)는 기호 1번 '톡톡'(Talk Talk)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이해선(멀티 3) · 황인혁(행정 3) 후보, 기호 2번에 'He's different' 선본의 김중섭(경영 4) · 김종원(행정 4) 후보가 출마했다.

정책토론회, 야총 2번 후보에 질문 쏟아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투표를 한 주 앞둔 지난 22일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학생회 후보와 아간총학생회 후보 2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2팀이 참여해

공약을 발표 및 토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중선관위의 측에서 많은 질문을 던져 시선을 끌었다.

'드림하이' 총학생회 선본은 등록금 및 적립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학교 측에 내세울 것은 적립금 얘기 뿐인데 학교 측과 사업의 정당성을 논할 때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묻는 학생 측의 질문에 김태성 정총학생회장 후보는 "회계사와 논의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고 이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란 질문에는 "총학생회가 얼마 나 날로 뛰느냐에 달린 일"이라며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학기 중으로 옮기도록 노력해보고, 학생들과 미리 요구안을 나누고 기록해 방중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 옥형빈(의패 3)학생은 "등록금 문제는 이벤트 식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야총 후보 질의 응답 시간엔 등록금 10% 인하 운동이란 공약을 설명한 기호 2번 'He's different' 선본에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한영준(의패 4) 중선관위원장은 "등록금 10%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얘기해 주시길 실질적인 방안은 아니라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중섭 아간총학생회 정학생회장 후보는 "대략적인 방향과 노선을 정할 뿐 실질적인 일은 실제 일을 추진해가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호1번 '톡톡' 선본 이해선 정학생회장 후보는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 추가 질문을 이었고 학생 측에서도 "공약은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건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섭 후보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을 뿐 믿고 맡겨주신다면 등록금 협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견외 삼성 회장을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할 뿐이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영입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하며 겪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이에 한영준 중선관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이므로 (후보가) 생각하는 바도 맞겠지만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 해 준비해야 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HBS 방송국에서 비디오로 촬영해 학생식당에 생방송 되었으며 교내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 게시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상이 기자 sangmi@hansung.ac.kr

사 령

수습기자
박현우(지정정보 1) 오지영(의생합 1)
방주연(한국어문 1)

고시반 입반생 선발안내

- 모집부서: 공무원준비반, 공인회계사반, 감정평가사반, 관세사반
- 모집기간: 2011. 3. 29(화) - 2011. 4. 6(화)
- 모집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인원수	공통과목	전공과목
공무원 준비반	총50명	영어	행정학
공인회계사반			회계학
감정평가사반			경제학원론
관세사반			무역영어

- 응시자격: 재학생 및 휴학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인자 (토익성적 700점 이상 학생은 영어시험 면제함)
- 시험일시: 2011. 4. 16(토) 10:00 ~ 12:00
• 1교시: 전공과목 • 2교시: 영어
- 시험장소: 우촌관 103호, 104호
- 합격자 발표: 2011. 4. 29(금)
- 고시반 입반학생 특징
• 고시반 열람실 사용 • 교재 및 강의료 지원(년간 50만원) • 고시 합격시 장학금 지급
단, 고시반 입반시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없음(재학생 1차 합격시 장학금 지급)
- 접수장소: 취업.창업지원팀 (우촌관3층/ 9번 창구) - 교내(5817)

담뱃불로 인한 교내 화재 급증

휴지통에 버려진 불씨가 주요 원인

겨울방학인 지난 2월 4일, 연구동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전 9시 20분을 전후해 발생했으며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해 진화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연구동 4층 교수 우편함 옆 휴지통으로 금속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흔적이 남지 않은 정도로 불에 탔다. 인접한 우편함의 일부도 훼손됐으며 로비 벽체 및 천장과 바닥 일부가 손상됐다. 또한 4층 복도 전체와 로비 및 화장실이 연기와 그을음으로 오염됐다. 이번 화재에 대응하는 데는 7분이 걸려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다. 이는 설 명절 다음 날인 휴일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부재로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당국은 이 화재의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다. 교내 화재는 그 원인을 크게 전열기 사용과 담뱃불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담뱃불로 인한 사고가 확연히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는 낙산관에서 무용과 남학생이 탈의실에서 흡연 후 떨어진 담배꽂이를 바닥에 버려 카페트에 발화했다. 같은 해 5월에도 공학관 B

동 6층 계단 옆 쓰레기통에 끼지 않은 담배를 버려 플라스틱 쓰레기통의 내용물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해 화재 경보가 울렸다. 또한 9월부터 12월에는 공학관과 창의관, 진리관, 학생관에서 외부 쓰레기통 담배꽂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모두 끼지 않은 담배꽂이로 인한 사고다. 덜 꺼진 담배꽂이를 재떨이에 비벼 끼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그 인의 내용물에 불이 옮겨 붙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학교는 종합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교내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교내 전체 4개의 경비실에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수신반에 화재 신호가 들어와 대처에 들어간다.

화재 발생시 낙산관, 인성관, 창의관은 창의관 경비실에서 미래관, 우촌관은 우촌관 경비실에서 공학관, 지선관, 연구동은 공학관 경비실에서 진리관, 학생관, 탐구관은 탐구관 경비실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정문 경비실, 중앙관제실, 시설지원팀에 각각 전체 건물의 화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경비실이



▲ 지난 2월 4일 연구동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휴지통과 우편함 일부가 불에 탔으며 로비 벽이 그을음으로 오염됐다.

없는 건물도 화재 신호를 인지할 수 있다.

이번 화재 이후 학교 측은 소방교육 및 시설점검을 재정비했다. 지난 8일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서면 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와 함께 대피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으로 3월 말까지 모든 건물에 배치될 예정

이다. 화장실 등에 흡연 감지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박명환(산업경영공학부)총무처장은 "전열기 과열 또는 휴지통에 버려진 불씨 등을 개인적으로 조금만 주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내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간추린소식

Hansung Success Frontier 4월 8일까지 접수받아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학생지원팀은 Hansung Success Frontier 탐방 계획서를 접수받는다. Hansung Success Frontier는 특정 주제에 관련한 선진 기관의 탐방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팀 구성원이 방문할 국가 및 기관을 직접 조사해 계획을 세우고 탐방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생들은 성적 제한이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3.50점 이상인 자이거나 전체 학기 성적 평균 3.50점 이상인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검사와 2차 구두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팀당 3명씩 총 24명이 선발되고, 선발된 팀은 하계 방학 기간 중 10일에서 14일 일정으로 떠나게 된다.

내가 원하는 직업 '잡영'에서 찾는다

지난 18일 우리학교는 '잡영(JobYoung)'과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이 채널로 잡영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원하는 직업을 찾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다. 잡영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취업전문 포털사이트로 구직자의 조건에 맞게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현재는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단계이며, 잡영 이용이 본격화 되면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조건을 학교와 잡영 사이트에 연동시켜 조건에 맞는 직업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우승식(취업·창업지원팀) 주임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학년이 단기적으로 준비하기보다 저학년 때부터 직무에 대한 이해와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잡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잡영사이트 주소는 <http://jobyoung.work.go.kr>이다.

잡 카페에서 취업 관련 도서 대출하자

창의관 1층에 위치한 잡 카페에서 취업에 관련한 도서를 대출 할 수 있다. 잡 카페는 이력서 작성, 적성검사 지원서, 자기 계발서 등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서적을 4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잡 카페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 오전 9시~오후 9시, 방학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며, 최대 3권을 일주일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단, 도서 반납이 연체되면 6개월간 잡 카페 도서 이용이 금지된다.

잡 카페 이소연 상담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잡 카페에 구비된 서적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자회 및 엔화모금 성금 일본에 전달

지난 23일 일본을 돕기 위해 진행된 바자회 및 엔화모금에서 모인 성금이 자매대학인 일본 홋카이도 사범 대학에 직접 전달되었다. 엔화모금은 18일~22일에 학생식당에서, 바자회는 22일에 우촌관 앞 잔디광장에서 이뤄졌다. 바자회에는 정주택 총장이 만년필 등 평소 애용하는 애장품을 내놓기도 했다. 또 바자회에는 MBC '나누면 행복' 촬영 팀도 함께했다.

바자회에서 모인 금액이 한화로 2백2십3만300원, 엔화모금을 통해 모인 금액이 한화로 3백2십7만5천940원, 엔화가 1만2천엔으로 총 금액은 2십4만8천엔이다.

한편 21일에는 우리대학 교직원들의 3월 급여 가운데 1%를 공제해 만든 1천만원의 성금이 무료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동정란

서영운(영어영문학부)교수·교학부장 서 교수는 오는 4월 9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한국현대미드라마학회 2011 봄 정기 학술대회'에서 'Shaw's Too True to Be Good에 나타난 질병의 양상과 치유'를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신인숙(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교수 신 교수는 제 1회 서울시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아 지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토발디자인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지난 3월 17일부터 IT Complex 건립 공사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자문을 하게 됐다.

제한적인 연속간행물 대출서비스

대출편의 위해선 학생들 관심 선행되어야

연속간행물실에서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연속간행물 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함에 있어 몇 가지 불편함이 존재한다. 대출 가능한 연속간행물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출가능 도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근로학생이나 조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미영(학술정보팀)팀원은 "연속간행물은 최신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료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게다가 연속간행물은 한번 분할하면 다시 찾기가 쉽지 않다. 한번 만들어 낼 때 얼마나 만들어 낼지 한정하고, 그 수량만큼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고 연속간행물의 자료적 특징을 설명했다.

또 연속간행물 관리와 관련하여는 "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단행본의 경우 그에 맞는 바코드를 부착해 전산

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연속간행물의 경우 그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타 대학들에서는 연속간행물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관에서 제한적이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이유는 연속간행물 중에도 자료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미영 팀원은 "학술잡지의 경우 나와 있는 내용이 최신성과 관계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속간행물 실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가능 도서 공개는 아직

고려 중이다. 정미영 팀원은 "현재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문구를 부착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이용이 점점 줄어들어 예산상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직까지 고려만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총 이용자 수가 16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13명만 이용했고, 이용 건수도 405건에서 170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대출서비스 이용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정미영 팀원은 "전자저널의 활성화가 그 이유가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다. 학생들이 연속간행물실에 대해 알고 더 많이 이용한다면 학교에서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인문대 '4Season' 선본 당선

지난 23일~24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인문대 '4Season' 선거운동본부의 박아름(영어영문 3정학생회장 후보)과 박지수(지정 2부학생회장 후보)가 11대 인문대 학생회로 당선됐다.

총 1천439명 중 76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763표 중 찬성 682표로 89.38%의 지지율을 보였다.

'4Season' 선본의 공약은 ▲등록금 동결 ▲취업 간담회 ▲플랑·자보 지원 ▲인문IN 알리미 등이다. 박아름(영어영문 3정학생회장 당선자)은 "말보다 실천하는 학생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학우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학술정보관 장서 50만권 달성

학술정보관에서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작한 '장서 50만권 소장'을 위한 도서기증 캠페인'이 지난 10일 그 목표를 달성했다.(2011년 3월 10일 기준 500,090권) 이는 서도원 도서관(서울지역 동북부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협약 대상 대학 중 4번 째로 50만권을 돌파한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 182명이 총 3만 4800권을 기증했고 장서확충기금은 1천322만 1500원이 모아졌다.

학술정보관에서는 지난 22일 장서 50만권 달성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장을 비롯한 학

술정보관 운영위원, 자료선정위원, 도서관장 등의 관계자와 전 부서 팀장,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일환으로 전교직원과 학생들(선착순)에 기념품 배부 및 학술정보관 제사편을 진행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서 연체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이성민(학술자료팀)팀장은 "이제부터 쾌적한 이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판차가 지났거나 오래된 구간을 정리하고 신간서적, 학술DB 및 e-book 자료를 보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RefWorks

이용자교육안내

참고문헌/연구정보관리

학술정보관에서 도입한 RefWorks의 이용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이용자교육 일시 및 장소
 - ◆ 일시 : 3월 31일(목) 14:00~15:30
 - ◆ 장소 : 탐구관 201호
 - ◆ 교육내용
 - RefWorks 이용방법 설명
 - 새로운 2.0 버전(4월 중 적용 예정) 인터페이스 특징
 - ◆ 교육대상 : 교내 구성원 전체
 - ◆ 문의 : 학술정보관 학술정보팀 염정훈 (5997)
2. RefWorks (참고문헌 및 연구정보 관리) 특징
 - ◆ 연구업무에 필요한 레퍼런스, 연구논문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관리
 - ◆ 국내외 학회, 출판사, 학술저널에 대한 출력스타일(인용, 참고문헌 포맷)을 활용하여 논문작성 시 인용문헌 / 참고문헌 리스트 자동 생성
 - ◆ 전자저널, 학술DB에서 검색된 article을 자동으로 RefWorks에 반입하여 개인만의 참고문헌 DB로 관리
 - ◆ 접속경로 : 학술정보관홈페이지) E-Resource) 학술DB) 제공업체별리스트)Refworks

학생들이 학생회에 바라는 점

“달콤한 이상도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사용 할 수 있는 사물함 수가 부족해서 불편하다. 사물함 수를 더 늘려야 한다. 수강신청 시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이 많아 수강신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강의 시간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시간 중복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보동(한국어문 3)**

기자재 대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카메라를 대여할 때 단채명이 아니라 개인명으로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술정보관 이용시간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9시가 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다. 주말에는 더욱 이용가능시간이 짧다.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밤 12시까지지는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학생회가 너무 폐쇄적인 것 같다. 학생회가 임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시영(한국어문 2)**

야간작업 할 때 히터룸 이용하려면 야간 잔류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야간 잔류 절차를 간소화 했으면 한다. 야식 배부의 수량이 정해져서 야식을 배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야식 수량을 늘려서 야식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선관에 매점이 없어서 공학관으로 가야만 하는데, 공학관 매점도 9시 전에 닫아 불편하다. 지선관에 매점이 생겼으면 좋겠다. **박주혜(회화 2)**

수업시간에 쓰는 컴퓨터나 카메라 등의 기자재가 고장나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과제를 하기 힘들다. 손상된 기자재를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줬으면 좋겠다. **한다운(에너지공 2)**

예전에는 공학관 매점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단순한 수퍼마켓이 되어버린 것 같다. 공대 학생회가 공학관 매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ATM기계가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공학관에 ATM 기계를 새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김재현(정치 4)**

가장 중요한 문제는 등록금 문제다. 학생이 공부에 주가 되어야 하는데, 등록금이 높아지면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만 한다. 다른 공약들은 지키지 못해도, 등록금 동결·인하 공약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외에 학생회와 공개기구들에서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재현(컴공 2)**

신입생이어서 자세한 공약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등록금 동결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등록금이 인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을 우선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기간에 받는 야식에 대해 궁금하다. 야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주호(무역 1)**

예대와 공대는 연계활동을 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두 단체 외에 사대와 인대는 따로 활동해서 불이익이 많다. 사대 역시 인문대와 연계를 해서 체전 등을 개최하고, 행사도 함께 하는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피성민(경영 4)**

야간에는 통학버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불편하다. 야간 통학회에서 야간 통학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야간에 매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불편하다. 매점이 이용 시간을 늘려줬으면 한다. 학생회와 공개기구 후보들이 현재 내건 공약들만이라도 잘 지켜준다면 학교가 더 좋아질 것이다. **김교진(한국어문 2)**

교환학생 수기

University of Evansville

넓은 미국 땅으로

이렇게 교환학생 자격으로 교환 학생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에게 제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에반스빌 대학교를 소개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에반스빌 대학교는 인디애나 주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캔터키 주와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시골에 위치한 학교라고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학교생활에 대해 학우님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교환학생 자격으로 온 학생들과 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살아야 하는 학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여가시간에 윈반던지기, 볼링 등을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구기종목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곳에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학우분들을 위해 학교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을 포함하여 국제학생 신분으로 오게 되면 토폴 점수에 상관없이 오리엔테이션 일정 중에 여기서 행해지는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시험을 보았을 때에는, 주제 3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영어 에세이 시험을 먼저 그 다음날 영어 문법, 독해능력 시험을 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첫 학기에 학교에 개설된 영어과목들(리딩, 리스닝, 문법, 에세이)을 얼마나 수강해야 하는지 지정받게 됩니다. 즉, 이 시험을 대충 치르게 된다면 영어 과목을 많이 수강해야 합니다. 그만큼 미리 생각해두었던, 수강하고 싶었던 과목을 선택하는데 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가을학기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하게 되신다면 일주일간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이고 친구들도 그만큼 사귀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학기에 오시게 된다면 여기서 볼 학기가 한국의 2학기기에 신입생들이 적어 오리엔테이션 기간도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과목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과대학 학생으로서 현지 에반스빌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공과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학생들도 질문이 많고 적극적입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 점은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현재 전공 3과목을 포함한 5개 과목 총 15학점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을 준비 중인 공과대학 학우님들 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비는, 전공과목을 최대 3개정

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제와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지 학생들도 전공과목 4개 이상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저도 현지 학교에서 전공4과목을 수강하고서는 생애 처음으로 과목포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짐을 못치고 하루하루 과제하며 제출기한 지키기에 정신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너무 학우님들에게 겁만 준 것 같네요.

사립마다 외국에 나오는 목표와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여 위와 같이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든 경우도 겪을 것입니다. 이런 국제학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학업에 충실하는 것과 학생들과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그 상황을 피하기 보다는 직접 부딪힌다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박희진(컴공 4)**



대학만평

이주영(에너지공 4)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게 있어... 무관심과 공약...

대한민국을 이끄는 1%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2기·53기 후보생 모집안내

- ▶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2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3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1년 3월 7일 ~ 4월 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 1차 필기고사 : 4월 9일(토) / 발표 : 4월 29일(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5. 2 ~ 5. 20(3주) / 발표 : 6월 10일(금)
 - 신원조회 : 6월 13일 ~ 8월 19일(10주)
 - 최종합격자 발표 : 8월 25일(목)
- ▶ 문의처 : 학군교 (02)3403-7121~4 / 대학 학군단

학생중앙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연간 학술자료 구독 예산 약 3억 8천여만 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중간 과제물과 각 과목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서터다라운지가 보인다.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대출한 전공 도서관 전공 관련 도서를 뒤지는 학생들의 손이 바쁘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학술지나 관련 논문을 찾아볼 수는 없다. 노트북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니터를 봐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을 뿐, 학술 DB를 이용하거나 검색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학교에서 학술지나 관련 논문, 학술 DB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학생이 없는 것은 왜일까.

이에 대해 남승기(한국어문 3) 학생은 "학생들이 학술지나 관련 논문, 학술 DB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보니 학생들이 이용방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용방법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관심 부재를 큰 이유로 꼽았다.

학생들은 학술지나 관련 논문, 학술 DB의 이용방법이 어렵고 낯설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미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는 신입생 이용교육, 재학생 이용교육, 학술 DB 이용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온라인 이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은 학생증을 발급받은 후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남승기 학생은 "학생들에게 있어 온라인 이용교육은 대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이용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받으라고 하니 학생들은 온라인 이용교육 장을 띄워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 학술지, 관련 논문, 학술 DB 등 구축된 서비스의 이용 안 해

전진욱(시각영상 3) 학생은 "학과 특성상 과제를 할 때 전문서적은 많이 빌려보는 편이다. 하지만 그 동안 웹상에서 전자 저널이나 전문 학술지 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형식상에 그치는 이용자 교육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생들이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았다면 과제를 할 때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며 학생들이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주는 방법인 것 같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전문서적이나 잡지는 학생들이 너도나도 빌려본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학술 DB나 전자 저널을 이용해 과제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승기 학생은 "이용자 교육처럼 형식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주시 때 학술 DB나 전자 저널의 활용에 대해 한 번씩만 언급해주셔도 많은 학생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학생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지만, 알고 보면 유용한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SFX A to Z (이하 SFX)

SFX는 지난 2010년 도입한 일종의 통합검색서비스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각각의 국내 전자저널 사이트에 개별 접속해 검색하던 불편함을 덜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서비스검색 결과와 관련된 자원과 저널이나 DB 원문으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SFX 서비스의 장점은 학술정보관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이나 네이버(Naver) 전문정보 사이트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하는 정보를 구글 학술검색이나 네이버 전문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한 경우, 우리학교 학술 DB에서 제공하는 내용일 경우 오른쪽에 'Find it@Hansung Library'로 링크되어 있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10년 4월 위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로 총 이용횟수는 3만7천 624회로 통계수치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교수 및 대학원생의 이용횟수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학생들의 이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원문복사 신청

원문복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내 자료실에 없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그 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타 기관에서 학술정보관으로 원문을 복사해서 보내준다. 학교를 통해 간접 수령하기가 번거로운 경우 직접 수령할 수도 있는데, 직접 수령 시에는 요금제를 '선불'로 선택하면 된다. 단, 선불로 선택할 경우 학생

이 아닌 일반 이용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수령하는 '후불'제 보다 금액이 비싸다. 원문복사에 드는 복사비와 우편배송료는 각 기관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 복사비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교외 접속 프로그램

국회도서관 등 타기관 자료검색 서비스를 취급하는 학술 DB를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7월부터 우리학교는 교외 접속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성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학술 DB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로그인만 하면 국내의 전자저널과 학술 DB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다.

2010년도 학술자료 구독 금액을 보면 ▲국내 인쇄저널 1천5백5십9만1천900원, 국외 인쇄저널 4천8백6십만4천143원, 국내 전자저널 4천3백9십1만1천원, 국외 전자저널 1억5천6백3십6만8천202원, 국내 학술 DB 2천5백5만9천150원, 국외 학술 DB 9천3백6십6만4천256원으로 총 3억8천6백1십9만7천651원이었다. 학교 측에서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용도는 매우 낮다.

이에 대해 학술정보관 정미영(연속간행물·대학사료실) 팀원은 "연속간행물실을 찾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드는 추세이다.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여전하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싶지만 이용자 수가 적으면 자료 구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하늘 기자 blue dreams@hansung.ac.kr

동양화 스토리

천하의 명인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 최복 '풍설야귀인도(風雪夜歸人圖)', 18세기 중엽, 지본수묵담채, 66.3× 42.9cm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양사상은 대체로 자연과 인간을 공존 관계로 파악하며, 도가와 불가의 경우는 특히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도가의 자연관은 장주(莊周) 장자의 본명의 수많은 우화를 통해 나타내는데, 나비의 꿈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겠다. 이 이야기는 인간 인식의 확실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장자의 자연에 대한 태도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비와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므로써 자연과 인간의 기계적인 구분은 부정하고 일체화된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만큼 인간과 자연의 만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했다.

유가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이용을 인정하되 과도한 파괴를 경계하였는데, 『맹자』(양해왕 편)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꾀하는 유가적 자연관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의 문신인 송순(宋 純)의 시조에 신 년을 살면서 초가삼간 지어냈으니 나 한 칸, 닭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이대로 돌려 두고 보리라. 라고 한 것이 최복의 '풍설야귀인도(風雪夜歸人圖)' 라고 하였다. 이 그림은 최복의 일생을 보여 주는 듯하다. 최복은 화가로서의 자존을 위해 스스로 눈을 찌르고 평생을 외눈으로 살았다고 한다. 이는 물론 화중뿐만 아니라 기이한 행

동 때문이기도 하다. 어느 날 한 세도가가 권세를 앞세워 그에게 여러 번 그림을 강요하자 처라리 내 자신을 자해를 할지언정 남에게 구속받지 않겠다며 필통에서 송곳을 꺼내 자기 눈을 찔렀다. 이렇듯 그는 흔히 한국의 반고호라고 말할 수 있다. 최복은 문사지식의 표방에 따른 초세적(超世的) 천자연주의의 실천과 함께 사의적(寫意的)인 남종문인화풍을 구사하는 등 시·서·화를 겸비한 조선 후기의 본격적인 직업화가로서 활약했다. 강세황과 더불어 심사정·정선 다음의 대가로 손꼽혔던 그의 유작들은 산수·화조·초충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는 자유인이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림을 팔아 가며 전국을 주유(周遊)했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금강산 구룡포(九龍浦)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명인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투신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니 그의 광기를 짐작할 만하다. 최복의 '풍설야귀인도'이란, 말 그대로 눈보라 치는 겨울밤에 귀가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뜻한다. 그림은 비록 당대의 화가들과 화풍은 다르지만 동양화의 일반적인 자연관을 그대로 보여 주며 인간이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듯이 그의 회화정신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회화 중 가장 파격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최복의 '풍설야귀인도(風雪夜歸人圖)' 라고 하였다. 이 그림은 최복의 일생을 보여 주는 듯하다. 최복은 화가로서의 자존을 위해 스스로 눈을 찌르고 평생을 외눈으로 살았다고 한다. 이는 물론 화중뿐만 아니라 기이한 행

이근우 / 현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학술서평

분야별 학술잡지, 무엇을 볼까?

『창작과비평』, 『마케팅』, 『Science(사이언스)』



대학생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학술잡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문, 경제·경영, 과학 분야에서 각각 하나의 학술지와 학술잡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문 분야에서 뽑힌 『창작과비평』은 창비(창작과비평사에서 만든 책으로 1966년 1월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

고 있는 문예지이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문학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논한다. 이번 11년도 3월호에는 '다시 동아시아를 말한다', '중국 국내문제의 냉전시대적 배경' 등의 시사와 경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어문 분야의 잡지답게 김애란 작가의

'두근두근 내 인생'과 김용택 시인의 '공요의' 등의 시와 소설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대산대학문학상의 수상 작품을 수록해 수상작들을 볼 수 있다.

경제경영 분야에서 뽑은 잡지는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한국마케팅연구원에서 출판한 마케팅 분야의 전문 잡지로 마케팅 분야의 여러 소식을 전한다. 이 잡지는 마케팅 리더십, 마케팅 이슈, 마케팅 트렌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3월호에서는 '마케팅 리더십' 코너에서 100대 상장 기업 슬로건이란 주제로 각 기업들이 슬로건을 통해 어떻게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브랜드와 입소문 마케팅'에서는 '마인드'란 기업이 어떻게 트위터와 같은 SNS를 이용해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했는지 등 마케팅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이외에도 'OPUS YONSEI'의 코너에서 구제역

등의 문제로 인한 판매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마케팅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 분야의 잡지는 해외 학술잡지인 『Science』이다. 『Science』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발행하는 과학 전문 주간지이다. 이 잡지는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잡지로 영국의 과학잡지 『Nature(네이처)』와 함께 세계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잡지는 물리학·화학·생물학·우주과학 등 종합과학을 다루며 세계 여러 과학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Science』의 내용은 『Science Express』(www.sciencema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작과비평』과 『마케팅』의 경우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학술정보관 내 E-Journal에서 DBP(http://www.djopia.co.kr/)로 들어가 무료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박형선 기자 phstlan@hansung.ac.kr

English Honors Program 영어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한성대학교 교양영어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English honors Program을 시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영어 우수자를 선발하여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성대학교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영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비 학점 과정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내용

iBT 토폴 1주당 3시간/연 24주 토폴전문 강사 25명 4개 반

그룹 스피크 1주당 2시간/연 24주 한성대 외국인 교수 5명 20개 팀

영어몰입캠프 방학 중 1주일/연 2회 한성대 외국인 교수 25명 4개 반

교육기간: 1년(예:2011년 3월~2012년 2월)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2~4학년 100명(2011년 3월 기준)

특징: 단기 어학 연수 대상 선발 시 우선권 부여(필리핀,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및 해외 연수 학생 선발 시 우선권 부여

English Honors Program 수료증 발급과 성적표에 명시

사설 소문과 진실

다양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서 공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원하던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쉽게 밀려들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의 발달에 이어 스마트폰의 대중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한 동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정보 유통의 양을 폭증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정보 소통 방식의 변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 방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있다. 제스틴 허빙이라고 불리면서, 트위터에서 시작해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열기 또한 정보의 실시간 전달을 가능하게 한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이 없었으면 과연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정보 소통 방식의 변화 영향이 꼭 긍정적일 것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 섞이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최근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소문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지자마자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하면서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도달한다는 괴담이 퍼져 나갔다.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근거로 들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이어서 슈퍼문 재앙설이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다. 슈퍼문이 떠오르면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해일, 화산 폭발, 지진 등의 큰 재앙이 덮칠 것이라는 소문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지만, 실제로 슈퍼문이 떠올랐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을 뿐 아무런 재앙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문이 일단 퍼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따지기보다는 소문의 확대·재생산에 매달리곤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럴듯한 근거를 찾아내곤 한다. 슈퍼문 재앙설만 하더라도 슈퍼문이 떠오른 1974년에 대규모 사이클론이 호주 일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 시켰고, 2006년 인도네시아에 사상 최대의 쓰나미가 몰아닥쳤다는 과거의 사실들을 들면서 슈퍼문이 떠오르면 항상 큰 재앙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근거에 힘입으면서 슈퍼문 재앙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입파판파로 퍼져갔다. 슈퍼문과 해일, 화산 폭발, 지진 등을 연관시킬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진과 해일이라는 자연의 파괴력과 원전 사고라는 문명의 산물이 일으킨 대재앙이 주는 공포와 결합한 소문의 힘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공포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기보다는 정보의 모순을 먼 소문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속에 들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 소통 방식의 변화가 인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성적 능력을 기반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소문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 화 정



명광주 교수
(미디어디자인연구소장, 시각영상전문)

하양, 노랑, 분홍, 보라, 연두... 예쁜 빛의 봄, 따뜻한 생명의 봄, 가슴 설레는 기대의 봄이 오고 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 맺기로 종결될 생명의 과정을 시작하는 때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다.

우리 대학에도 새 봄을 알리는 전령이 찾아왔다. 하양, 노랑, 분홍, 보라, 연두의 새내기들이다. 따뜻한 봄기운으로 씨앗에서 막 피어난 새싹처럼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짝 낯설어 하기도 하고... 그러나 모두가 봄처럼 아름답다.

한 알의 씨앗은 새 생명을 담아서 소중하고, 열매를 시작하는 역할로서 위대하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머지않아 큰 나무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사람도 배, 배짱과 같은 구조의 씨앗을 담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꿈은 사람 수만큼 많다. 성공의 목표는 다양하다.

학교는 이 생명을 가진 씨앗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날아와 뿌리를 내릴 땅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탐스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고 환 경이여야 한다. 성공의 땅은 일을 생생하게 하는 질소, 꽃과 열매를 탄생하게 하는 인산, 그리고 뿌

새내기들이여, 여기 한성에서 꽃피우라

리를 튼튼하게 하는 칼리가 잘 조화된 곳이다. 물론 씨앗이 새싹을 틔우는 것은 봄기운 가득한 땅 때문만은 아니다. 씨앗의 생명력도 중요하다. 자신의 노력과 대학의 가르침이 똑같이 중요하다. 서로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시너지가 발생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각각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어린 씨앗은 실제로도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엄청난 화학반응처럼 성공을 일궈 낼 가능성이 있다. 속병론을 떨치고 희망 가득한 꿈과 목표를 만들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한 가능성이라는 말 아닐까 싶다.

우리의 새내기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도 활동의 방향성도 채 없기에 쉬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새내기를 물질상태로 표현하면 고화화하지 않은 젤이다. 플라스틱의 모습에 따라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모양이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응성향으로 보면 무엇이든 흡수하는 스펀지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집중할 방향과 도달전력의 정확한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영감이 있는 다양한 메뉴를 각자가 실속 있게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한성이 진정한 상상력 인류배터, 성공을 실현하고 준비하

는 파일럿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 양 획일 전략을 구사한다. 필요요소를 필요충분조건화 하는 우다. 글로벌, 세계화가 그렇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세계화한 것일 수도 있다.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 한 사람의 성공 뒤에는 뜨지 못한 수천수만의 사람이 있다. 그것은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자결과다. 모든 이들이 뛰어든 곳은 이미 길도 볼모도 아닌지 모른다. 미래학자들은 머지않아 현재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종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대의 키워드는 융합이고, 미래 수요기술은 이것저것을 새로 리믹스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전화의 리믹스가 융합가능 스마트폰이다. 전통 영역과 패러다임 고수는 시대역행이다.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구제역 침출수문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탱크, 방사능을 원천 차단한 녹색 먹을거리 생산 공장... 시대를 통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기에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나서 새내기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오늘을 뛰어 넘는 전략과 묘안을 보여줄 때, 새내기들이여 여기 한성에서 성공을 준비하라.

447호를 읽고

1. 447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아랍 민주화 혁명, 간단히 짚어보기"

중동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대학생들에게 간략하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현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상기하는 바가 있으며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많은 대학생들의 무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

덧붙여 세계경제와 국제문제를 독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띤 하나의 언론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해 보여 학보의 보도 수준은 괄목할 만하다.

2. 447호에서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사설 : 스마트 혁명"

스마트폰이 하나의 트렌드를 이룬 시점에서 고도로 발달된 기기문명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하는 그의 의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소개가 장황하게 길어져 다소 식상한 느낌을 주고,

'스마트 혁명'이라는 사설의 주 논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해 언론사의 입장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설'의 역할에서 다소 미흡했다 보여진다.

3.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독자들의 신청, 투고로 이루어지는 광고 소식란을 마련함이 어떨까?

"...야, 생일 축하해. 네가 태어나서 다행이었어."

"아빠지, 사랑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캠프에 함께해주세요~"

4. 취재면, 사회면, 학술면, 문화면, 기획면 등 각 면을 평가해주세요.

취재면 : 인터뷰와 통계자료가 풍부해 현장감이 있고 등록금 인상과 그에 따른 본지의 문제의식이 잘 전달되었다.

학술면 : '신라의 통일, 통일신라가 될 수 있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통상적 인식에 변화를 모색하여 다룬 것도 독자의 이해와 흥미유발에 효과적이었다. 다만 학술면 자체가 '역사'라는 한 분야에 치중되어 다뤄진 면이 아쉬웠다.

문화면 : 영화, 사진, 음악 등 문화에 다양하고 균형적인 보도가 좋았다.

다만 커피에 대한 기사는 다소 PPM(간접광고)의 느낌을 주는지라 거부한 면이 없지 않다.

5. 사진의 크기, 기사의 글자 크기, 헤드라인, 컬러 등 디자인적인 면은 적절했나요?

디자인의 구성 및 전체구조가 적당하고 무난하다. 가독성과 응집력이 좋다.

김미래 (역사문화 4)



6. 447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종합해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학기 시작이라는 시기에 맞물려 등록금 인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취재가 분명했고 문화, 학술, 취재면 등 기타 방면에 대한 보도 의도도 독자에게 충실히 전달될 듯 하다.

독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부분도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일부 정보전달성에 치중된 기사 및 논지 전달력이 부족한 기사들이 옥의 티라던지!

독자투고-개인칼럼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이성현 (한국어 2)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혹은 아직 너무 살바에 안 된 높이 뜰때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20대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중후반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만약 20대 초반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가 걱정된다.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꿈은 소설가다. 하지만, 궁극적인 꿈이라고 보기엔 힘들다. 무릇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여 우리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꿈'으로 정의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나 또한 같은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작가들이 시작부터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작품을 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 경지에 오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 내 실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걷는 다 해도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내 모든 걸 걸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다.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꿈을 고수하고 있다. 거대한 산도 정상이 보이듯, 현실 속에서 난 이상을 계속해서 본다. 자주 내 눈앞에서 이른 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험겨운 길을 택한 것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내 푸념은 계속되겠지만, 꿈을 이루기 전까지 푸념이 꺼지지 않길 바란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성대신문 평가단 모집

때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닌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한 당신.

사회 전반에 흥미가 많아 시사지나 신문을 자주 읽는 당신.

그래서 한성대신문을 매번 읽어보는 당신.

내가 읽은 신문 혹은 그 주제에 대해 글로든 말로든, 타인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

지금, '이거 내 얘기잖아!' 하고 있는 당신

당신 거기 있나요?

한성대신문이 평가단으로 활동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한성대신문 평가단
- 모집기간 : 4월 8일(금)까지
- 신청자격 : 우리학교 재학생
- 평가단 혜택 : 한 호당 문화상품권 1만원 권
- 활동내용 : 각주료 발행된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 혹은 아쉬웠던 부분을 짚어주세요.
- 활동기간 : 2011년 1학기
- 신청방법 : 전화문의 후 방문
- 한성대신문사 : 02)760-4186
- 편집국장 : 010-7124-5831

한성대신문사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1년도 1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3월 14일(월) ~ 2011년 6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와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회공약알아보기

단체별공약 공개기구공약

〈사회과학대〉 'FLOW'

기호 1번 'FLOW'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사회과학대 후보로 가진 수(경영 3정학생회장 후보, 김대업(경영 3부학생회장 후보가) 등록했다.

'FLOW' 선본의 공약은 FLOW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Fun', 'Lovely', 'One', 'We'라는 4개의 테마로 구성했다. 대표적인 공약은 ▲포토제닉행사 ▲야식지원 사업 ▲편입생, 복학생, 전입생을 위한 조별과제 게시판 ▲사대 예산 투명성 확보 ▲사대 사업 기화안 기재 등이다.

포토제닉 행사는 매달 사진공모전을 열고 수집한 사진을 모아 달력도 만드는 행사이다. 만든 달력을 팔아서 모은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야식지원 사업은 시험기간에 학생들에게 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부위, 총학생회와 연계해서 진행해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편입생, 복학생, 전입생을 위한 게시판은 모든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서 제시되었다. 사대 예산 투명성 확보와 기화안 공개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이다.

하진수 정학생회장 후보는 "사대 학생회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와 다른 단체 학생회들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공약을 대부분이 연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하며,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회를 이끌어갈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사회과학대〉 '만족'

기호 2번 '만족'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사회과학대 후보로 강범석(경제 3정학생회장 후보, 양훈민(행정 2부학생회장 후보가) 등록했다.

▲등록금 인상 저지 ▲강의 평가 공개요구 ▲핵심교양 과목증설 및 증원 요구 ▲사대 체전의 활성화 ▲농활 시 농촌과의 지속적 연대 추진 ▲매학기 모교지 행사 추진 ▲중고 교재 커넥터 시스템 ▲사업 공청회 추진 ▲사대 예산 통장을 스캔해서 제시 ▲회의록, 예산자료 게시를 위한 게시판 설치 등이 공약의 주된 내용이다.

농활의 지속적 연대 추진은 농활을 단순한 봉사 개념이 아닌 농촌과 대학생의 소통의 개념으로 보여 농촌 교류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모교지 행사는 나름의 개념으로 매 학기에 한번씩 사대에서 엠티형식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사대 체전과 더불어 사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늘려, 사대 내에서의 친목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중고 교재 커넥터 시스템은 교재 구입으로 생기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중고 교재 판매자와 구입자를 학생회에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사업공청회, 사대 예산 통장 공개, 회의록·예산자료 게시를 위한 게시판 설치 등은 학생들의 학생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강범석 정학생회장 후보는 "새로운 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를 강조했다.



〈예술대〉 'LEOK'

제 14대 예술대학 학생회 후보로는 'LEOK' 선거운동본부의 옥형빈(의예 3 정 학생회장후보, 권혜원(인테리어 4) 부학생회장 후보가) 등록했다.

주 공약은 ▲2011년도 등록금 인상과 관련 학생 측 '학생요구안'의 실현 ▲예대 프리마켓이다. 옥형빈 정학생회장 후보는 학생 수용하지 않았던 안들까지 요구, 진행상황을 학우들에게 발 빠르게 알리고자 한다"며 "실수정비 개·보수를 통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적극 개선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대 프리마켓 공약에 대해 "타인과 교류가 없는 예대의 현실을 감안해 예대인만의 색다른 행사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옥형빈 정학생회장 후보는 "예대는 학내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단대지만 학교일에는 무관심해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예대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과대〉 '특공대'

제 13대 공과대학 학생회 후보로는 '특공대' 선거운동본부의 최민지(멀티 4정학생회장후보, 배재현(정시 2부학생회장후보가) 등록했다.

그는 ▲공학관 기업을 ATM기 설치 ▲게릴라 이벤트사업 실시 ▲금대 취업준생 DB화 ▲공대경진대회 ▲공학관 휴게실 리모델링 ▲열린 공대실 ▲부령한 학생회 ▲하나되는 공대인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최민지 정학생회장 후보는 "공대인들이 하나되는 행사와 더불어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등 공대만의 차별성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대 취업·졸업생DB와 공약에 대해 "현재는 졸업·재학생 간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 다양한 취업정보를 알려주고 그에 취직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린 공대실 공약에 대해 "공대학생회 클럽을 개설해 공대 소식을 올리고 학우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졸업준비위원회 '비상'

제 25대 졸업준비위원회 '비상'이라는 선거운동본부 정위원장후보 임두리(경영 4) 부위원장후보 최유라(경영 3)가 각각 출마했다. '비상'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졸업앨범 ▲졸준위가 함께 준비하는 취업준비 ▲학생들과 소통하는 졸준위가 주된 내용이다. 임두리 정위원장 후보는 "졸업앨범 초안, 표지디자인을 공개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DVD앨범 또한 컨셉 공모 및 시안공개를 통해 창의적으로 졸업앨범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공약에 대해 "취업지원팀과 연계해 잡카페를 활성화 시키고 취업대비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취업강좌 및 직무성검사를 진행하는 등 학우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4학년 학생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트위터를 개설해 학우들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진촬영 과정과 졸업앨범비 환불에 대한 절차 및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해 학생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임두리 정위원장 후보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다함께 만들어가는 졸업준비위원회가 되고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학생복지위원회 '즐거찾기'

기호 1번 '즐거찾기'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 후보로 문기원(멀티 4)학부위원장 후보가, 최희주(멀티 4)학부위부위원장 후보가 입후보했다.

공약은 ▲학생증 활용도 향상 ▲학부위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학복위 마감시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내세웠다.

학생증 활용도 향상은 학생증 사용을 학술정보관과 같이 모두 전산화해 활용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기존처럼 신분증을 맡기거나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물품을 빌릴 수 있다.

문기원 정위원장후보는 이와 관련해 "학생증 이용이 전산화되면 학생들의 물품 이용도 편리해지고, 물품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복위 어플 개발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기 구비는 최근 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학복위 마감시간 연장은 늦은 시간에 수업이 끝나 학복위를 이용하기 힘든 야간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 본래 마감시간인 8시를 9시 30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기원 정위원장후보는 "당선이 되면 주간학생, 야간학생에 상관없이 모두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학복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위원회 '만족'

기호 2번 '만족'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학생복지위원회 후보로 고재훈(정통 4)학부위원장 후보, 김병성(정시 3)학부위부위원장 후보가 등록했다.

▲학복위 출입문 교체 ▲노트북, 냅북 등의 공동구매 서비스 ▲컬러복사, 사진인화 서비스 ▲공학용 계산기의 전자사전 대어 ▲다양한 행사 홍보 ▲시험기간에 정의관 공학관 미라관에 간식배부 ▲핸드폰 셀프 충전소 설치 ▲기존 사업의 확충 등이 만족 선본의 주요 공약 내용이다.

복사와 사진 인화는 수업과 관련된 것을 주로 취급할 방침이며, 공학용 계산기와 전자사전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것들을 모아 수리해서 사용해 제공한다.

행사 홍보는 모든 학생들이 학복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간식 배부는 저렴하게 하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 사업 확충은 시네마 데이, 명절 귀향 버스, 금연 캠페인 등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야간 총학생회 'Talk Talk'

제 18대 야간 총학생회 후보 기호 1번 'Talk Talk'는 정학생회장으로 이혜선(멀티 3)후보가, 부학생회장으로는 황인혁(행정 3)후보가 등록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개설 통한 학생들의 교류 ▲SNS를 통한 학우들과의 대화 ▲취업 및 교육관련 정보 나눔 ▲야간점등시간 조정 ▲야간학생들을 위한 게릴라 야식배부 ▲도서관 및 노트북 대여실 운영 시간 연장 ▲학식 이용시간 연장 ▲ATM 사용시간 연장 ▲야간학교시설 운영 ▲스쿨버스 운행 시간 연장 ▲간식자판기 설치 ▲열람실 24시간 개방 ▲가방등 추가설치 및 전등합기 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혜선 정학생회장 후보는 "학생들이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위터나 미투데이를 이용해 학우들의 사소한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을 들음으로써 학우들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노력하며 학생들의 복지개선에 힘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선 정학생회장 후보는 "당선이 되어 공약들을 추진한다면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학교생활이 편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야간 총학생회 'He's Different'

제 18대 야간 총학생회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He's Different'는 정학생회장으로 김종섭(경영 4)후보가, 부학생회장으로 김동원(행정 4)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등록금 10%인하 운동 추진 ▲성적장학금 현 상위 10%에서 20%까지 확대선발 ▲교차수강범위 확대 ▲실전진로캠프운영 ▲카네기리더십프로그램 개최라는 공약을 제시한다.

김종섭 정학생회장 후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의 후원을 받기 위한 노력도, 재단과의 협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차수강범위 확대 공약에 대해서 "야간학생들은 주·야간 교차장정 때 주간수업신청을 하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 받을 권리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차수강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우리학교 장학금은 상위 10%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20%로 확대해 동기부여를 하게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섭 정학생회장 후보는 "학교와 학생들 모두가 WINWIN하는 야간총학생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주간식단표

2011년 3월 28일(월요일) ~ 4월 1일(금요일)

	월 3/28	화 3/29	수 3/30	목 3/31	금 4/1
한식	새백아채비빔밥 전치국수 해초무침 김치(배추: 국내산) 황도	뼈해장국 쌀밥(쌀: 국내산) 콩나물무침 김치(배추: 국내산) 요쿠르트	연두부제육(국내산) 비빔밥 유부장국 메추리알조림 포기김치 괴일	안동찜닭(국내산) 쌀밥(쌀: 국내산) 동그랑명전 무말랭이무침 김치(배추: 국내산)	만두순두부찌개 쌀밥(쌀: 국내산) 미트볼케찹소림 계란찜 오이무침 김치(배추: 국내산)
양식	포크소세지(국내산) &오므라이스 미소장국 아채샐러드 황도	두부까스 치킨가스정식 아채샐러드 클링클릿 피클 옥수수스프	태국식볶음밥 메일국수 파사이채무침 아채샐러드 핫도그	함박 스테이크정식 후레이크프리스 프 피클 괴일	오므라이스 &닭고치미(국내산) 미역미소장국 그린샐러드 요쿠르트 깍두기

◆ 위 식단은 식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쌀, 돼지고기, 닭고기(닭정육, 닭정육), 닭가슴살, 김치(배추: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닭정육, 미국산 닭장(달걀), 미국산을 사용합니다.

기자수첩

화장품 상술에 걸려들다

영화 <미스터리>에서 극 중 주인공은 "추녀는 가라"며 외모지상주의를 외친다. 그러다 저주로 인해 온 몸이 흉터와 문신으로 뒤덮이게 되면서 은신하게 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다. 그는 이후 사랑에 빠지면서 외면보다 내면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남자는 착해야 하고 여자는 예뻐야 해요. 외모가 부족하면 피부라든 좋아야 하죠." 여자의 본능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다. 며칠 전 만난 K화장품 판매원은 여자는 피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에게 한 달에 5만 원 씩 총 10번의 결제를 성사시켰다. 그는 14가지의 기초 화장품을 소개시켜주고 하나씩 손등에 발라주며 피부 관리에 소홀한 나를 꾸짖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지만 하나씩 바를수록 목은 때를 벗고서 새해해지는 등 피부부를 보고는 "당장 살게요"를 외치며 계약서를 쓰고 말았다. 물론 그 날 저녁까지는 믿고 발라보면 피부가 좋아질거란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이성이 돌아온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후회했다. 지인들

모두 "그건 사기잖아"라는 반응이었다. 결국 나는 환불을 요청한 상태다. 나는 어찌자고 14종의 화장품을 품에 안고 귀가했던 것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외모지상주의를 외치는 현대사회에서 여대생들은 피부관리를 따로 받기가 힘들다. 이러한 시점에서 꾸준한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짐을 테스트를 통해 느끼게 되면 귀가 솔깃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상술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들 줄 몰랐다.

기자 일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접착하는 일이 빈번하다. 무심한 반응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의 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리의 설문조사는 참여하는 편이다. 너무 사람들을 믿었던 탓일까. '여성의 피부'를 공략했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들의 외모지상주의를 향한 욕구가 높아져 갈수록 '여성의 미모'를 이용한 상술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⑤
⑥				

가로

- 1 '인격' '위격(位格)' 등의 뜻으로 쓰이는 라틴어
- 2 동남구(東南區)의 북부에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
- 3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 4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정
- 5 일본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의 이름
- 6 신라 22대 지증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 155호 고분
- 7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 줌, 또는 그런 일
- 8 조선 중기 무전 지역에서 활동한 기린·환승가. 최근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짐

세로

- 1 프랑스의 수학자, 근대의 정수 이론 및 확률론의 창시자
- 2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양에 면해 있는 나라,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무장군벌들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
- 3 이탈리아의 행정시, '아메리카'라는 지명의 유래
- 4 반는 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임명장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부유층으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받고 팔았던 허적(檄)적 임명장
- 5 중국 고대 신화에 나타나는 전쟁의 신, 형제와 전쟁을 벌여 태해 죽음
- 6 일본군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한 화승총, 일본말로로는 불어 태해 죽음
- 7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Music



b

‘감상’을 넘어 ‘마케팅전략’으로 우리가 접하는 일상 속 음악에 ‘목적’이 있다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정성없이 쇼핑에 빠져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의외로 많은 시간이 흘러 있을 때가 있다. 또 호프집에서 흘러나오는 크고 경쾌한 비트의 음악으로 인해 술을 더 빨리 혹은 많이 마셨던 기억도 흔하다. 밀리만(제라컨설팅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느린 템포의 음악일수록 소비자는 매장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려주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악의 심리적 효과가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매장음악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운드텔링 서비스업체도 탄생했다.

이러한 음악마케팅에 대해 『컬처텔링』(김우정 지음, 바람에서는) “현재의 사운드텔링은 기업의 이미지나 제품 등에 입힌 멜로디가 고객에게 입혀지면서 구매심리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발전했다. 매장의 음악은 단순히 배경효과가 아니라 매장의 브랜드를 기억하고 재방문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KT뮤직 뮤직메이저 한정진씨는 “소비자의 감성에 어울리는 음악을 통해 제품과 매장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소비경험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매출증대로 연결시키는 마케팅의 한 분야”라고 음악마케팅을 소개했다. 음식의 구수한 냄새와 경

쾌한 음악이 만나면 소비자의 구매욕구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정진씨는 “백화점의 경우 지하매장은 대부분 음식과 식재료를 파는 공간이므로 옷과 소품을 파는 다른 매장과는 달리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류 매장도 층마다 다른 음악으로 소비자들을 자극한다. 예로 현대백화점의 경우 3가지 테마들로 매장을 구성한다. 첫 번째 ‘활동적인’ 테마는 빠른 박자의 팝이나 가요들로 선곡해 영패션, 식품관, 캐주얼의류 층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인다. 두 번째 ‘프리미엄’ 테마는 느린 박자의 음악으로 구성돼 발라드풍의 팝과 광고음악으로 선곡하며 주부들이 주로 찾는 여성복과 가전제품 층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인다. 세 번째 테마인 ‘럭셔리’는 명품관과 고급여성류 층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고급스러운 재즈음악으로 구성된다.

또 병원이나 약국은 고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로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선곡하는 반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는 방문하는 연령층에 맞춰 팝이나 가요, 템포가 빠른 음악을 선곡해 들려준다.

한편, 공간의 분위기에 맞는 음반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멜로디가 매장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예로 ‘히어뮤직’이란 음반사를 인수해 매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반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음반은 매일 전 세계 1만2천여개의 스타벅스 매장에 공급된다. 멜로디를 통해 다른 커피매장과 차별화 해 스타벅스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멜로디마케팅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음악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지하철역도 음악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다.

뮤직메이저 한정진씨는 “지하철역은 대학가와 직장가, 사적(가역사유적), 일반권역으로 나누어 방문하는 이용고객층과 목적에 따라 분류해 선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는 친숙한 뉴에이지로 아침을 맞이하고 활동시간이 활발한 저녁시간이 되면 가사가 있는 팝이 역사를 읊린다. 또 직장가의 경우는 재즈로 아침을 시작하고 사적(가역사유적)은 클래식과 재즈로 시작하고 직장가는 퓨전재즈 위주로 선곡한다. 이러한 음악 안에 ‘우울동행’ 등의 메시지를 삽입해 홍보역할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정진씨는 “지하철 음악마케팅은 처음엔 자살방지방으로 도입

되었지만 심리적 안정을 주고자 많은 역사에서 음악마케팅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원인을 설명한다.

선곡의 기준은 시간대별로 바뀌기도 한다. 서점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경쾌한 클래식을 위주로 편곡, 점심시간은 빠른 퓨전재즈 위주로, 오후에는 느린 뉴에이지 위주로 선곡한다.

그는 “업종과 방문 연령층, 시간대를 고려해 음악선정을 하고 있다. 똑같은 연주곡이라도 과격하거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배제한다. 클래식을 선정할 때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인테리어를 이용해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한 뒤 음악을 이용함으로써 한 층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며 “이를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악은 ‘감상’이라는 심미적인 취미를 벗어나 상업적인 마케팅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파고들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려오는 최신가요나 클래식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노래가 무언의 의미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뭘 또 그렇게까지>

그 누가 말했나 춘천이 낭만의 도시라고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 쉬는 곳”이라고 누가 불렀던가. ‘춘천은 낭만의 도시’라는 말은 또 어떤 필자 좋은 분께서? 사랑이 숨쉬고, 낭만이 넘실거리는 춘천은 적어도 이 영화 <뭘 또 그렇게까지>엔 없다. ‘나쁜 총동’의 기류가 흥명한 춘천이 있을 뿐이다. <뭘 또 그렇게까지>는 서울, 인천, 춘천, 부산, 제주 등 한국의 다섯 도시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프로젝트 ‘영화, 한국을 만나다’ 중 하나다.

슬럼프에 빠져 있는 화가 천우(이동규)는 세미나 참석을 위해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지루한 세미나가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던 천우는 김유정역에서 총동행 엔딩을 통해 자신에게 금이 간 그들의 마음을 봉합까지 시켜준다. ‘뭘 또 그렇게까지...’라는 제목처럼 심각한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영화는 시종일관 유머러스하게 흐른다. 이 영화가 홍상수의 이류작이 아니라, 나름의 패러디로 읽히는 것도 그만의 개성을 놓치지 않은 이러한 시선 덕분이다.

제목에서부터 홍상수스러운이 불친중겨나는 영화는 내용에서도 홍상수스러움을 군데군데 드러낸다. 유정 앞에서 ‘인생이 어쩌구 저쩌구’, ‘니체가 어쩌네 저쩌네’ 장황한 허세를 떨던 천우는, 그녀와 하룻밤 보내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해 일순간 비굴해진다. 그런 천우의 마

음을 이용해 익숙을 챙기려는 영악한 유정 역시 순수한 인간은 못 된다. 교단에 서는 고고한 척 하고, 술자리에서는 서로 맞은 또 어떤 필자 좋은 분께서? 사랑이 숨쉬고, 낭만이 넘실거리는 춘천은 적어도 이 영화 <뭘 또 그렇게까지>엔 없다. ‘나쁜 총동’의 기류가 흥명한 춘천이 있을 뿐이다. <뭘 또 그렇게까지>는 서울, 인천, 춘천, 부산, 제주 등 한국의 다섯 도시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프로젝트 ‘영화, 한국을 만나다’ 중 하나다.

하지만 <뭘 또 그렇게까지>의 시선은 홍상수 영화들에 비해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친근하고, 보다 따뜻하다. 홍상수의 영화가 속물근성 가득 찬 인물들을 깨발러 낸다면, 이 영화는 그러한 인물들에게 제법 여유로운 시선을 보낸다. ‘잠시의 총동이었는데’라고 달래기도 하고, 위트 있는 상황을 통해 어르기도 한다. 급기야 해피엔딩을 통해 자신에게 금이 간 그들의 마음을 봉합까지 시켜준다. ‘뭘 또 그렇게까지...’라는 제목처럼 심각한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 영화는 시종일관 유머러스하게 흐른다. 이 영화가 홍상수의 이류작이 아니라, 나름의 패러디로 읽히는 것도 그만의 개성을 놓치지 않은 이러한 시선 덕분이다.

‘영화, 한국을 만나다’라는 지역색을 지닌 프로젝트 영화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은 것도 칭찬할 부분이다. 영화는 춘천이라는 배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김유정, 문희준, 정명사, 춘천호 등의 자연풍광을 인물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뿐이다. 이미지가 인물들의 여정에 힘을 실는 요소로 적절하게 사용된 좋은 예다.

글·정사유 (무비스트 기자)

◆ Diamond Records

<Back in Black(검은 옷을 입고 돌아오다)>



에이시 디시(AC/DC)는 팝 록 영화 영거스 영 형제에 의해 만들어진 헤비메탈 밴드이다. 호주 출신의 이 밴드는 <Highway to Hell(지옥행 고속도로)>를 통해 유럽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자신들

의 입지를 굳히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보컬리스트였던 본 스코트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밴드는 위기에 봉착했다. 말콤과 영거스는 해결책이 필요했고, 보컬리스트에 브라이언 존슨을 영입해 본 작 <Back in Black(검은 옷을 입고 돌아오다)>을 작업했다. 그리고 이 앨범을 통해 드디어 에이시 디시는 미국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다.

대중들과 평단은 이 앨범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매 된 뒤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호주 밴드로는 이례적으로 1천200만장의 판매고를 이루어냈다. 게다가 영국의 ‘Q’지는 80년대 초반의 록 앨범 중 최고의 앨범으로 이 작품을 선정했다.

이 앨범에서 특징적인 것은 앨범의 제목과 커버가 모두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앨범이 죽은 보컬리스트 본 스코트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앨범에 등장하는 곡들에도 추모의 무거운 분위기가 잘 묻어나는데, ‘Hell’s Bells(지옥의 종말)’, ‘Back in Black’ 등의 곡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평론가들 중에는 이 검은색의 이미지를 ‘우직한 정공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에이시 디시라는 밴드가 초지일관 헤비메탈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장르만을 고집하는 에이시 디시의 모습과 한 가지 색깔로 된 앨범아트 모습은 묘하게 일치된다. 게다가 음악 전반에 깔려있는 무거운 느낌은 검은색과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앨범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요소는 브라이언 존슨의 존재다. 에이시 디시와의 첫 작업에도 불구하고 존슨의 보컬은 에이시 디시의 간판인 영거스의 기타에 뒤지지 않는다. 고출력의 쇠소리는 오히려 영거스의 기타리프를 능가하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평론가들은 ‘You shook me all night

long(난 날 밤새 흔들어놓았지)’, ‘Shake a leg(다리를 흔들어라)’ 등의 곡에서 이 두 아티스트의 힘이 거의 동등하다고 평가한다. 보컬로서 존슨의 입지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타이틀곡인 ‘Back in Black’은 최근 산타나(Santana)에 의해 라틴 록으로 재해석되기도 했다. 산타나가 연주한 ‘Back in Black’은 작년에 발매된 <Guitar Heaven: The Greatest Guitar Classics of All Time(기타곡의 천국: 가장 위대한 기타의 고전들)>에 6번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곡은 이달 9일에 있었던 산타나의 내한 공연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기타리프: 재즈에서 사용하는 관악기의 짧은 프레이즈를 기타로 표현한 것이다. 짧게 끊어지는 소리를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지난 3월 11일 회화과에서 발대식을 지내는 모습이다. 회화과는 야간작업을 하는 일이 많아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영신이나 화학약품 사용할 때도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개강부터 대신 발대식과 정기자랑으로 학기 행사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순호(회화 3) 학생회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이다. 전 학생과 교수님들이 참가해 한 해를 잘 보내보자는 영원의 의미로 고사를 지낸다”고 말했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